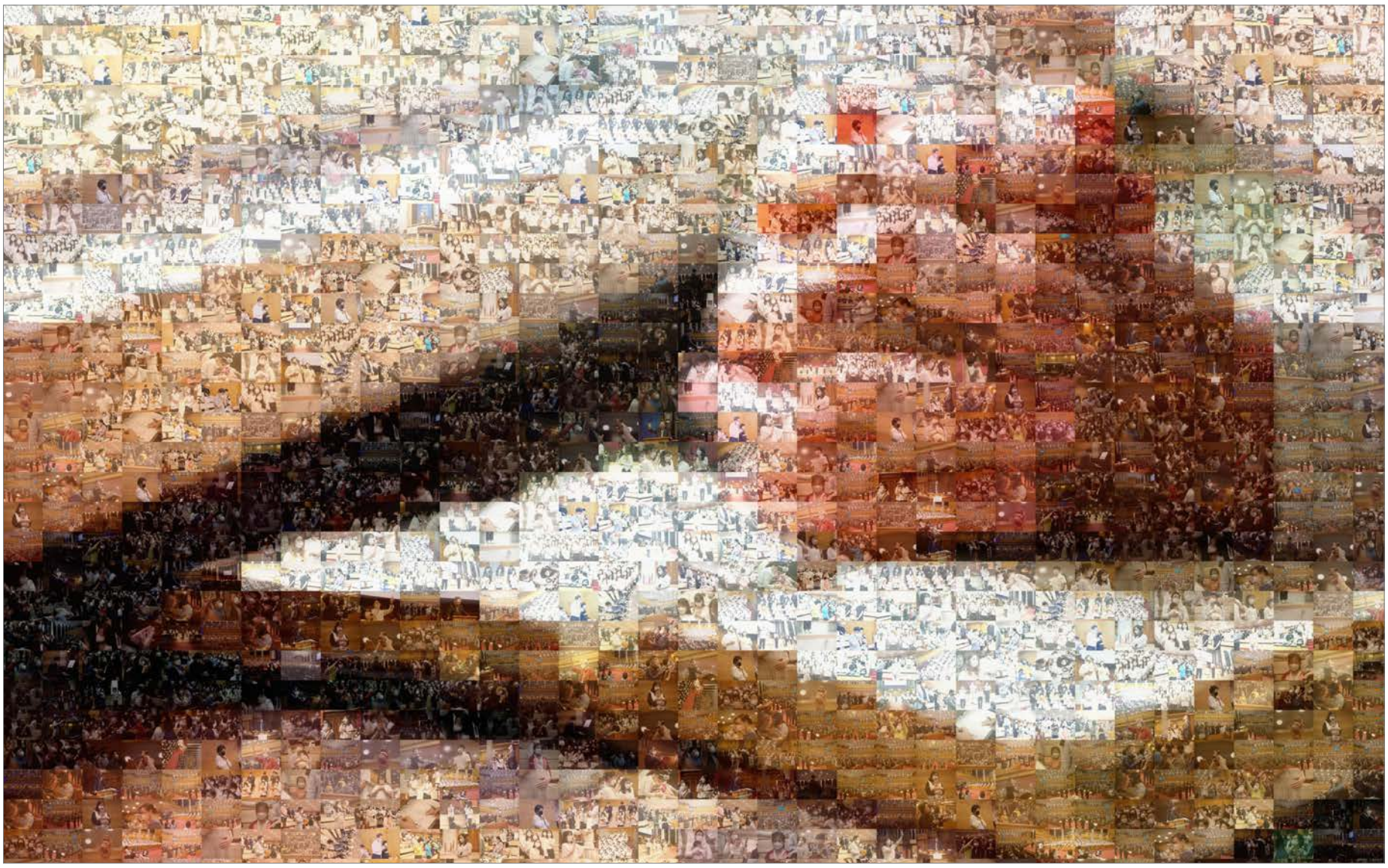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호렙산 기도회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7월 15일(금) 은혜와 감사의 성찬식으로 종료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성전은 분주히 내딛는 발걸음 소리와 줄 지은 차량들의 불빛이 기도의 갈급함과 열정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오전 4시 45분에 시작하는 호렙산 기도회는 원근 각처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다. 새벽의 피곤함을 털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 나오는 그 기도와 간구의 열심이 호렙산의 기도 응답과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시작된 호렙산 기도회는 올해로 34년째 진행 중이다. 매년 성령강림절 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을 생각하며 ‘숲 속의 불타는 불꽃’ 광림교회(Burning Bush Church)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기도회다. 이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교회 및 다음세대 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라와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호렙산 기도회는 계속되었으며, 펜데믹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의 회복을 넘어 영성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호렙산 기도회는 본당과 지교회, 호렙산 기도회를 사모하는 많은 교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같은 시간에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유튜브(광림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전하고 있다. 현재 호렙산 기도회는 토요일 기준으로 본당과 지교회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같은 시간 성도들은 온라인으로도 전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다. 호렙산에 직접 올라와서 뜨겁게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목청껏 ‘주여!’를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소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신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큰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굳건해진다.

이번 호렙산의 주제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그리스도인은 깊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둠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밤이 깊은 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선명해집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주님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 첫째, 자리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둘째, 빛으로 나아갈 때 사명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고 전했다.

매주 토요일에는 교회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오르는 호렙산 기도회>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체험이 있는 신앙교육의 현장으로서 부모와 함께 참여했다.

또한 토요일마다 교역자, 남선교회총연합회, 청년부, 여선교회총연합회의 찬양, 교회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특송으로 주말 기도회의 은혜를 더했다.

특별히 기도회 마지막주 토요일 7월 9일에는 청장년부 주관으로 ‘소망사진관’을 열어 본당 로비에서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한 가족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다.

6월 6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오는 7월 15일(금)에 성찬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4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변영혜 기자

2 광림의 강단 열매 맺기를 힘쓰라
3 광림 스토리 광림의 신앙 서적
4 특집 호렙산 기도회 간증
6 믿음의 현장 광림서교회, 북교회
7 다음세대 청년부 해외 100교회 건축과 해외단기선교
8 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열매 맺기를 힘쓰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1장 22절)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분으로서 제도와 관습으로 가려진 신앙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시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지만, 제도와 관습을 지키며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외식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아터번의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이라는 책에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변화 없이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며 종교적인 제도와 관습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 없고 진정성 없는 종교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오히려 참된 구원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회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회복하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시들도록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무화과나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파게'와 '테에나'로 나누어 부릅니다. '파게'로 불리는 무화과는 유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이고, 이후에 긴 여름 동안 다섯 번의 열매를 더 맺게 되는데 이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파게'는 떫고 시며 맛이 없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파게'는 자연스레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되었고, 누구든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인 파게 무화과를 맺지 못한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할 뿐 일 년 내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며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열매가 없고, 예수님의 일행의 배를 채워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고혈을 빨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종교적인 제도와 관습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22절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사명은 좋은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만날 때마다 배부름과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사명을 다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21~22절)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찾으신 이유는 아마도 그 무화과나무가 다른 무화과나무들에 비해 풍성해보여서 좋은 열매를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가셨던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는 모두 무화과가 많던 동네였습니다. 많은 무화과 중에 유독 눈에 띄었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으니 내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해 집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생각이나 말만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를 다짐합시다.

셋째,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원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진정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외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도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E. M 바운즈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며,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기도를 통해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군선교 50주년 희년대회〉 김선도 감독님 공로패 받아

한국 군선교 부흥의 재도약 다짐의 자리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6월 26일, 명성교회에서 '한국교회 군선교 희년대회'를 열었다.
군선교연합회는 교회협의회가 1972년 '전군신자화운동'을 한국 기독교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초교파적으로 창립한 '전군신자화후원회'가 그 시작이며 이후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로 개칭하였다.
이날 행사는 '감사 50년, 미래 50년'이란 주제로 군선교에 헌신한 역대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 군선교 부흥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희년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감사예배, 축하와 격려, 군선교 현장과 비전 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현재 군선교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한해 20만명씩 세례를 주던 것이 12만명으로, 다시 코로나를 핑계로 2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우린 생명을 걸고 황금어장인 군인 선교를 해야 한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면서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몸을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축하와 격려순서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가 사회를 맡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내빈을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병석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특별히 이날 대회에서는 그동안 군선교를 위해 헌신한 군선교연합회의 설립자 한경직 목사, 군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한 조용기 목사와 함께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김정석 목사 대리수상)이 공로상을 받았다.

교회부문에 있어서도 광림교회가 군선교 유공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광림교회는 그동안 연무대교회와 1사단 진중세례식을 후원해 왔으며, 5사단 상승교회를 비롯, 25사단교회, 해병대 연평교회를 재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다. 또 28사단 80연대 예닮교회, 1사단 전진제일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군인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로 잠시 중단한 상태이지만 1999년부터 매년 전교인이 통일성취기도회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교회 군선교 재도약과 미래 비전을 위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표어를 기반으로 '비전 2030'이 선포되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실로암 찬양을 부르며 다함께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득섭 기자

영적 성장의 길잡이, 광림의 신앙서적

성도들의 힘찬 찬양에 호렙의 새벽이 들썩인다.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온 성도들은 찬양 중에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다. 호렙산 기도회 기간 함께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은 〈기쁨의 찬양 5집〉에 수록된 곡이다.
기쁨의 찬양 5집은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찬송과 최신 찬양 400곡을 선곡하여 지난해 광림교회 '빛의 숲' 출판사에서 발간했다. 찬양집에는 모든 연령층이 부를 수 있는 전통적인 찬양에서부터 젊은 층이 좋아하는 최신 곡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곡의 순서 또한 찾기 쉽도록 가사 첫 소절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송의 삶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한다"며 예배와 속회, 선교회로 모일 때 기쁨의 찬양집을 활용하여 가사를 음미하고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시간 갖기를 권면했다.

광림교회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신앙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속회공과〉는 속회 조직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영적 성숙을 도울 수 있도록 담임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발간한 책이다. 소그룹모임, 직장 신우회 등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문서선교의 귀한 도구로 미자립교회와 학교 등에도 보급되고 있다. 공과 내용은 2021년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이번 2022년 하반기 공과의 범위는 열왕기서부터 에스더까지이다.

〈온타임〉은 성경통독을 위한 묵상집으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며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일상생활에 적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격년으로 발행되는 〈매일예배서〉는 바쁜 일상 중에도 매일 가정예배나 직장예배 또는 개인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절기에 맞춰 읽을 수 있는 본문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짧은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선아 기자

포토 뉴스

기도의 벽
본당 로비에는기도의 벽이 세워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채워지고 있다.

제9회 소망사진관
7월 9일, 청장년부 주관으로 본당로비에서 호렙산 기도회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다.

갈릴리 성가대 HOMECOMING DAY
7월 24일(주일) 3부 예배 후 사회봉사관에서 진행한다.

담임목사 동정

6/30~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7/4	선교사지원자 본부 집중훈련
	개회예배
7/6	서울남연회여교역자회
7/8	복음의전함 "들어볼까" 설명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으로 이사온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기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산 호렙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떼쓰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떼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업장을 주셨고, 아들, 딸에게는 직장과 배우자를 허락해주셨으며, 모든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 없는 삶이 되도록 해결해 주셨고, 내 삶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읽고 응답하셨습니다. 여주시 금사면에서 60km이상을 달려서 광림교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속회 예배도 기쁨으로 참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지를 알기에 저는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성전에서는 담임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 호렙산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와 저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더욱 감사하며 호렙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묘선 권사(9교구)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십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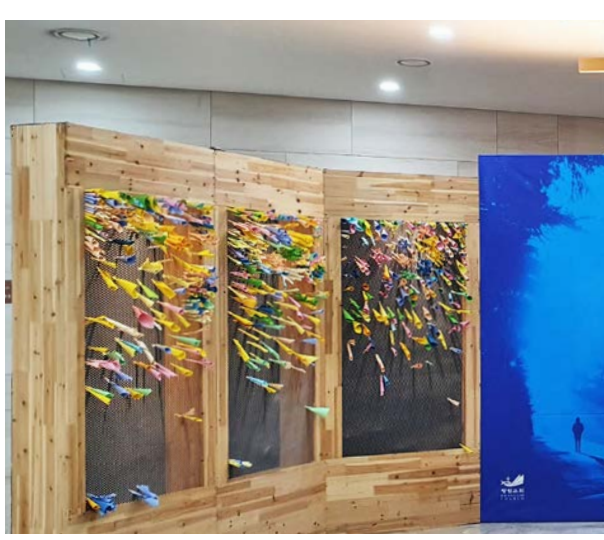
할렐루야!
"호렙산 40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십일조입니다"
1998년 광림교회에서 처음 접한 호렙산 기도회, 세상일에 바뻤던 저에게 40일 완주는 다른 사람의 몫이라 생각했고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엄마의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40일 채우는 것이 게을러질 때쯤,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호렙산을 4번만 오르면 된다는 말씀에 귀가 번뜩했습니다. 10일씩 4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 농담같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완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약해질 때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작년 제가 속한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호렙산은 1년 동안 기도하는 날의 십일조'라고 하신 말씀이 더욱 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올해도 완주를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할수록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아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할 힘도 주셨습니다.

부족한 나의 삶에 믿음의 남편과 두 아이를 허락하셨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우연도 없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 가족이 있음을,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는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이 정말 약해서 쉽게 잘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주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남은 호렙산을 완주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우유정 집사(24교구)



Break through Darkness into Light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제33회 작년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약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막 퇴사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몸부터 움직이는 일이 많았고, 그런 모습이 부끄러웠던 저는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 다 맡겨 드리고 잠잠히 주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세요."
하지만 평소 성격이 급해 '일단 움직이고 보는' 저에게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호렙산 완주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흉골이 부러져 전치 7주가 나왔고, 깁스를 할 수 없는 부위라 뼈가 잘못 붙으면 수술을 해야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얌전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올 스톱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폭주기관차처럼 혼자 달리다가 철로를 벗어나 버렸을지도 몰라'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SUV 차량 앞 범퍼가 반파될 정도였던 큰 사고에서 저의 생명을 지켜 주셨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심으로써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후에는 교육선교 팀장이라는 자리를 맡겨 주셔서 오로지 딱 하나의 일정, 교육선교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깥 일정이 강제로 정리된 덕에 졸업논문에 집중해 대학원도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열어 주셔서 미션스쿨인 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잊히고 감사와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호렙산은 그런 곳입니다. 거룩한 새벽의 때, 모든 성도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 세상에 하나뿐인 그 끝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채정민 성도(청년부)

나의 인생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오빠와 언니들이 모두 교회에 다녀서 어릴 적부터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 예배드리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이 모두 믿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부흥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런 저희를 강사 목사님은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고 사랑받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했고 세상을 처음 보았습니다. 레아의 딸 디나가 세상의 딸들을 보러 나갔던 것처럼 처음 접한 세상에 너무 놀랐고, 재미에 취해 주님 손을 놓쳐 버렸습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시댁은 뼛속까지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와 행사 때문에 교회는 갈 수 없었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점차 마음에 큰 짐이 생기고 말수가 적어져 갔습니다. 점점 제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정말 그 때는 나라도 살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았고,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벌써 34년 전이네요

그러다 3년 전 기대 없이 호렙산 기도회에 올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율법적인 삶의 강요, 세상적인 것을 탐하면 정죄된다는 사실'에 눌려 살던 제게 주님은 '율법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는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도 때마다 반복적으로 회개했던 죄책감에서 자유해졌고, 그 죄를 모두 담당하신 주님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 때 이후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알고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우리들을 생각하며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내 광야의 삶 40년 힘겨웠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님 보시는 곳을 보며 생각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내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믿음을 갖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종교인으로 안락하게 살았겠지만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기쁨과 행복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충옥 권사(광림북교회)

목회현장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신미정 목사(현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17) 말씀대로 현대고등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영혼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대고 학생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합금지로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었고, 더 나아가 교회를 잘 나왔던 학생들조차 학업 문제가 겹치면서 예배가 우선되었던 삶에서 학업과 다른 것들이 우선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견고한 신앙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인 하나님과 인간과 죄, 예수님과 성령님, 교회와 예배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 폐지되었던 기독동아리가 10년 만에 다시 개설되었으며, 지금은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신앙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교 예배에 참석하다가 광림교회 고등부 주일예배에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우회 선생님들과 자모회 어머니들 역시 예배를 통한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학교 선교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와 미래를 세워갈 차세대를 위해 '현대고 기독동창회 기도회'(HPS, Hyundai Prayer Supporters)가 결성되었습니다. HPS는 현대고 기독 자모들과 학생들이 연합하여 세워진 차세대의 영혼구원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HPS는 차세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헌신해 나갈 것입니다.

광림의 교우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힘든 일들이 가득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현대고의 학생들이 영혼구원을 얻고 연합하여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림서교회

2022년 환경선교주일

광림서교회는 지난 6월 12일 환경선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경선교주일'은 1990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사회선교부에서 조직되어 교단 차원의 환경운동으로 시작되었고, 1992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광림서교회는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선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모든 성도가 감리교 환경수칙 낭독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깊게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환경선교주일에는 '잠비아 미션센터 나무심기를 위한 유리컵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잠비아 미션센터 나무심기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세워가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유리컵 판매를 했습니다.

환경선교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실천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완성시키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시온 성가대 워크샵

상반기 마지막 주일, 광림북교회 시온성가대에서는 '성가대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부득불 계속 연기되고, 미뤄왔기에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가대장 김영문 권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성가대장으로 수고하셨던 조병현 권사님의 은혜로운 성경봉독,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신 목사님의 설교까지. 풍성한 은혜로 워크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시온성가대 규범 안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림교회 본당 성가대에 준하여 북교회의 특징에 맞도록 만들어진 규범을 통하여 성가대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무엇보다 광림교회의 5대 전통인 적극적 신앙,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을 강조하시면서, 광림교인은 교회 내의 어떤 조직에 있든, 5대 전통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워크샵을 통하여, 성가대원으로서 몸과 마음의 자세,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이신재, 정해자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평창 생고기'에서 성가대원 전체가 영의 양식 뿐 아니라 육의 양식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전교인 수련회 때 지교회 연합 찬양대로 섬긴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도 늘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성가대로 섬길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온성가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수현 권사(광림북교회)

8교구 10,11 속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속회

8교구 2지구 10, 11속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산신도시에 이사 온 광림의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1월 첫 속회를 드린 후, 매주 빠짐없이 서로의 가정을 오가며 기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산속회가 자연스럽게 꾸준히 모일 수 이유는 구리에서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하신 소현수, 김상희, 박은순, 강태안 권사님께서 격려와 기도해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장인 소현수 권사님은 매주 예배를 인도하며,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를 섬겨 주십니다.

또한 다산속회 속원들이 이미 청장년부 공동체에서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어 왔던 친밀한 관계였기에 '다산속회'의 이름으로 새롭게 모여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공과말씀과 적용말씀을 나눌 때 속원들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속원들의 마음 아픈 상처는 중보기도의 눈물이 되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속장인 안지혜 집사는 "모든 속원들이 매주 열심히 나오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막내 김혜진 성도는 "이사 온 후 믿음의 좋은 언니들이 생기고 자주 만나서 좋아요." 정수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안성원 집사는 "속회에 처음 나온 날부터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준 속원들 덕분에 새로운 속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전지현, 최문정 성도는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다산지역에 속회가 세워지도록 몇 년 전부터 8교구 중보기도팀 권사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아 집사(8교구)

청년부

"열방을 품고 기도로 준비해요"

2022년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 예정

2022년 가을 광림교회 청년부에서는 해외 단기 선교(네팔, 태국, 몽골)를 진행합니다. 상반기 동안 예배와 속회를 통해 본질을 지켜왔던 청년부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제60, 61번째 교회인 네팔 거이리단티 감리교회(Khairithanti Methodist Church), 영생감리교회(Eternal life Methodist Church)의 봉헌예배와 예배 회복을 위한 어린이 성경학교 및 건축될 부지의 땅 밟기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선교지들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마주하여 약 1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마다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청년들이 준비한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태국 팀장으로 섬기게 된 한영은 자매는 "그동안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 막혔던 하늘길이 열려서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하루속히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청년부 해외 선교 팀원으로 섬기는 정진우 형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각 나라의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번 가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교회에 교회를 세우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제9회 소망사진관

2022년 7월 9일(토) 본당 1층 기도의 벽 앞에서 열려

제8회 소망사진관

제34회 호렙산 기도회 마지막 토요일에 본당 1층에서 <소망 사진관>을 진행했다. 소망사진관은 올해 제9회째를 맞았다.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한 가족과 속원들과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사진을 남겼다.
소망사진관에서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신앙의 기록을 선물했다. 2014년 호렙산 기도회에 시작한 소망사진관은 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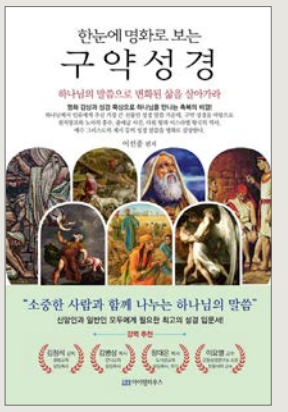
제1회 소망사진관은 최후의 만찬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촬영했다. 제5회 소망사진관은 캘리그라피 성경구절 팻말을 들고 촬영했다. 제7회 소망사진관은 코로나 극복 캠페인으로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덕분에' 수화를 포즈로 촬영했다. 올해 소망사진관은 제34회 호렙산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라' 팻말을 들고 촬영했다.

소망사진관 촬영은 청장2부 부장을 맡고 있는 명용인 집사가 맡았다. 진행은 청장년부 임원들이 섬겼다.
사진촬영과 기본 사이즈 사진은 무료로 인화해 준다. 추가 인화하거나 액자를 원하거나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메일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 있다. 판매수익은 해외선교 후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촬영된 사진은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B홀에서 찾아갈 수 있다.

유심원 전도사(청장년부)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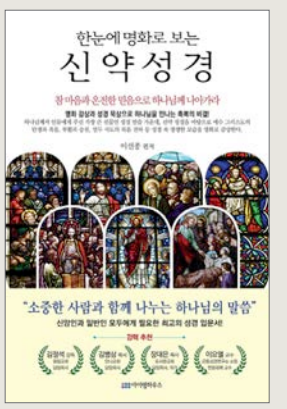
책으로 쌓는 교양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 성경]

이선종 지음

이 책은 그리스도인은 물론 성경의 세계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입문서이다. 명화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과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나아가서 다윗과 솔로몬 등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민족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이야기가 명화로 담겨 있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 성경]

이선종 지음

한눈에 명화로 보는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소재로 그린 명화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베드로와 바울 등 열두 사도의 복음 전파와 초대 교회의 형성,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사도 요한의 계시록 등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생히 명화로 펼쳐져 있다. 명화가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며, 신앙의 깨달음 뿐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미술사적 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2

예수의 성전 정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 요한복음 2장 13~22절

유월절(逾越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매년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으며 특히 성전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성전세(유대인 성인이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으로, 1인 당 반 세겔)와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이다.
희생제물은 보통 흠 없는 1년 된 숫양을 바쳤다. 소나 비둘기도 역시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했다.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진을 쳤고, 양을 파는 장사꾼들의 호객 행위로 시장터를 방불케 하였다. 환전상들은 폭리를 취했고, 양을 파는 장사꾼들은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 그러나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은 아무리 비싸도 성전 앞에서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성전에 들어선 예수는 이런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예수는 의분(義憤)이 차올랐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도둑과 강도들의 소굴이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는 채찍을 휘둘러 환전상의 책상을 엎고, 양과 비둘기와 소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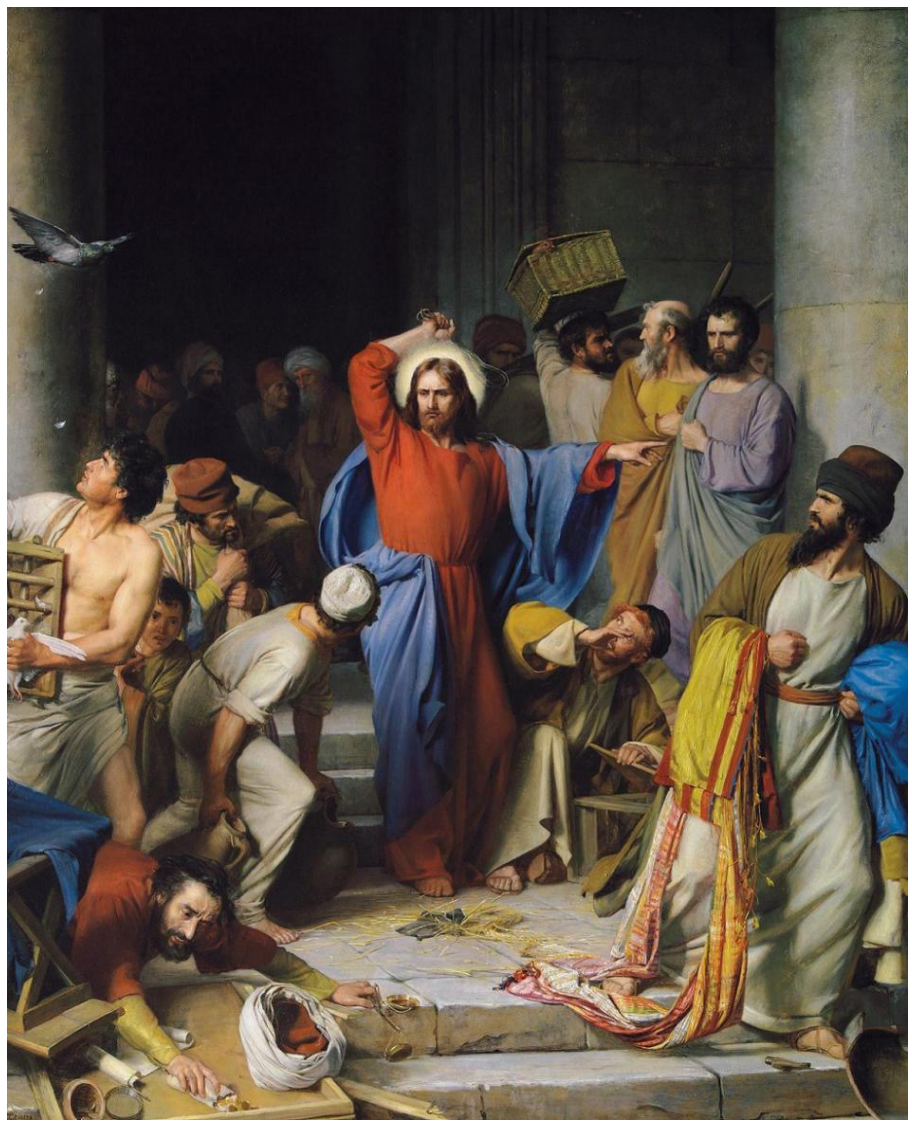
그러자 장사꾼들이 예수에게 항의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것이오? 우리는 제사장님의 허락을 받았단 말이오. 성전이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는 증거를 보이시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이 증거다."
유대인들이 분개하며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가 말한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씀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었다. 나중에야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사람들은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는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 표적을 보였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 맡겼다.

광림뉴스레터



▲ **예수의 성전 정화**_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환전상과 장사꾼들로 무질서하고 더럽혀지자, 예수가 그들을 혼내는 장면이다.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 작품.

◀ **예수의 성전 정화**_예수가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을 묘사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